

우리가족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은행 행내보

06

2021 June
Vol. 293

성취의 몰입



 우리금융그룹

성취의

몰입



 우리은행 WOORI BANK

우리가족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은행 행내보

06

2021 June Vol. 293

제15기 <우리가족> 편집위원

김선형 테헤란로금융센터 계장

김현정 서초남지점 계장

박영선 삼풍지점 계장

이다슬 신중동역지점 계장

이웅기 대치남지점 계장

이해주 상동역지점 계장

임지현 삼성로지점 계장

조은빈 혜화동지점 계장

조재민 구로디지털벨리지점 계장

황상현 인사부(파견) 대리

발행일 2021년 6월 18일
창간일 1998년 12월 1일
발행인 권광석
편집인 황선우
발행처 (주)우리은행
등록번호 서울증, 라00644
담당자 브랜드전략팀 박해철 과장(02-2002-3952)
기획+디자인 (주)이팝
인쇄 엔투디프린텍



SPECIAL THEME		
03	<u>스페셜 테마</u>	몰입
04	<u>스페셜 에세이</u>	직장인에게 몰입이란
06	<u>스페셜 리포트</u>	우리가족의 몰입

10	<u>WOORI NEWS</u>	우리은행 뉴스
14	<u>우리가족에게</u>	폐쇄 위기를 넘어, 왕중왕전을 노린다!
18	<u>WOORI 人 SIDE</u>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	<u>디지털 나들이</u>	블록체인 기반 대출 도입 사례와 시사점
22	<u>우리메신저</u>	우리가족 마음 톡!
24	<u>우리의 온도</u>	WOORI와 함께하는 3UP! 건강한 여름나기
26	<u>함께 꾸는 DREAM</u>	폴리지 않게 단단하게 마크라메 매듭처럼 오밀조밀한 우정
30	<u>꽃피우리</u>	편안한 상담, 솔루션 제안 감사합니다
32	<u>여행좋아行</u>	여름 숲에서, 길을 잃다
36	<u>心の 한 手</u>	혹시 나도 '화병'일까?
38	<u>바른 건강 상식</u>	지금 바로, 허리와 가슴과 어깨를 활짝 펴세요
40	<u>두근 DO GOOD</u>	내 아이의 행복한 순간, 악몽이 되지 않도록, 셰어런팅
42	<u>마음썰미</u>	변화의 블랙홀
43	<u>편집실 통신</u>	

스페셜 테마



몰입 : 몰입은 의식이 경험으로 꽂 차 있는 상태이다. 이때 각각의 경험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 느끼는 것,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다.

애쓰지 않고, 그 자체의 즐거움과 흥미로,
걱정은 사라지고 집중할 수 있는 것.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위한 내적 동기에 의해 일어나기에
그래서 더 간절한 몰입!

“나의 잠재력을 깨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바꾸기 위해”

직장인에게 몰입이란

글. 김선경 작가

작가소개 김선경

글 쓰는 직장인, 베스트셀러 <일 잘하는 사람은 글을 잘 씁니다>의 저자다. 아침이면 출근해 직장인으로서 글쓰기에 매달린 지 20년이 되었다. 다양한 조직에서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를 경험했다. 치열했던 고민과 처절했던 현장의 경험이 글쓰기에 좋은 약이 되었고, 그렇게 20년을 보냈다. 직장이라는 동일한 환경에서 건네는 조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오늘도 글을 쓴다.

언택트 시대, 글쓰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수는 노래로 말하고, 배우는 연기로, 직장인은 글로 말한다. 직장인은 글을 쓰기 싫어도 써야 한다. 기획서, 진행경과 보고, 업무일지, 업무 협조 메일, 사업계획, 기안서, 품의서, 스피치 등 회사의 핵심적인 일들은 글을 통해 이루어진다. 글쓰기는 직장인의 의무이자 책무이다. 그뿐인가? 글쓰기는 직장인들에게 기회가 된다. 회사에서 일 잘한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글쓰기이다. 직장인의 글쓰기는 회사와 조직에서 권력이 된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역사 속 천재들을 살펴보면 공통점 하나를 가지고 있다. 바로 몰입이다. 한 가지 주제에 몰입하고 몰입해서 해결책을 찾아낸다. 뉴턴은 만유인력을 발견한 비밀에 대해서 “매일매일 만유인력의 원리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다”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인슈타인은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얻어낸다”라고 말했다. 몰입 이론의 창시자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는 <몰입의 즐거움>에서 “몰입(Flow)은 삶이 고조되는 순간에 몰 흐르듯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느낌”이라고 설명한다. 직장인이 글쓰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자신을 내보내야 한다. 물론 쉽지는 않다.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한다. 직장인은 ‘조직 내 존재’이다. 홀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직 내에서 수많은 장애물에 노출된다. 사람도 만나야 하고, 전화도 받아야 한다. 메일로도 소통해야 한다. 글쓰기에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 바로 실천이 가능한 세 가지 몰입법이 있다. 첫째, ‘시간’에 몰입하라. 시간에 몰입하기 위해 일 잘하는 직장인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마감효과(Deadline effect)이다. 작가도 마감 시간에 쫓겨 쓴 글에서 베스트셀러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시험 전날 하는 공부가 집중이 잘 된다. 직장인 글쓰기도 시간을 정해놓으면 집중하게 된다. 시간에 몰입하는 노하우는 ‘리더와 동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업무지시를 받을 때 언제까지 필요한지 물어본다. 리더가 정해준 일정을 다시 한번 소리 내어 따라 한다. 마감일이 애매하다면 당신이 리더에게 언제까지 보고하겠다고 ‘선언’한다. 스스로 데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마감이 다가오면 주변이 나를 방해해도 휘둘릴 수가 없다. 진도가 안 나가도 써야 한다. 저절로 집중이 된다. 몰입이 된다.

동료들에게 당신의 보고서를 검토해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동료들이 검토할 시간을 정한다. 동료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엉망인 글을 보여줄 수는 없다. 한 페이지라도, 한 줄이라도 더 쓰게 된다. 초안을 검토하는 팀회의를 잡는 것도 글쓰기에 몰입하는 좋은 방법이다.

둘째, ‘장소’를 몰입하라. 주재원으로 근무할 때 법인 비전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니 방해로 인해 집중이 어려웠다. 현직인 직원들은 팀장인 나를 계속 찾았다. 한국 본사에서도 문의 전화가 계속 몰려왔다. 도무지 몰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상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하루 종일 법인의 비전만 생각했다. 일주일 뒤에 완성된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을 탈출할 수 있었다. 회사에서도 몰입의 힘을 잘 알고 있다. TFT를 조직할 때면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준다. 단절된 ‘장소’에서 몰입하라는 의미이다.

셋째, ‘정신’을 몰입하라. 서울대학교 황농문 교수는 재료 공학계에서 50년 이상 된 미해결 난제를 해결했고, 나노입자에 대한 논문은 최우수 논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풀리기 어려운 연구 과제가 주어지면 몰입을 하려고 노력한다. 황농문 교수는 “몰입 상태에서 몇 날이고, 내내 그 생각과 함께 잠이 들었다가 그 생각과 함께 잠이 깬다. 이런 몰입 상태에서는 문제 해결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라고 한다. 필자도 어려운 주제의 글쓰기는 눈을 부릅뜨고 뇌가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온 정신을 집중한다. 몰입을 통해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서로 융합하여 글쓰기로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과제에만 집중한다. 과제에 몰입하다 보면 아이디어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는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보고서에 집중할 때는 되도록이면 PC의 다른 실행 창들은 닫아버린다. 오로지 그 문제와 나만 일대일로 만난다. 온 우주 안에 나와 그 문제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한 번만 제대로 몰입해보라. 글쓰기를 잘하는 직장인들은 이미 몰입하는 글쓰기를 실천하고 있다. 직장인 고수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몰입하는 글쓰기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걱정할 것은 없다. 이제 시작하면 된다. 몰입하는 글쓰기를 한다면 당신의 글쓰기와 직장생활이 달라질 것이다. 달라진 당신의 글쓰기 덕분에 연말에 고과와 승진으로 보답받기를 기대해본다. ●

우리가족의 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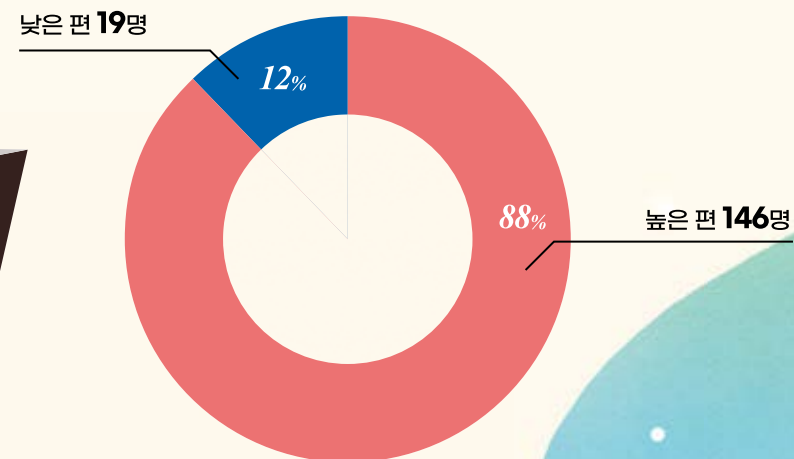
잠재력을 깨우는 몰입, 고도로 집중된 상태에서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추진력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개인의 강점을 이끌어내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족에게 자신 그리고 일, 즉 목표의 고도화를 위한 몰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몰입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정리. 편집실

함께 만드는 <우리가족>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여인원 우리가족 165명
- 조사기간 2021년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 조사방법 행내포털에서 실시

Question. 01 | 조직을 위한 나의 '업무 몰입도'를 스스로 평가해 본다면?



Question. 02 | 1번 문항을 선택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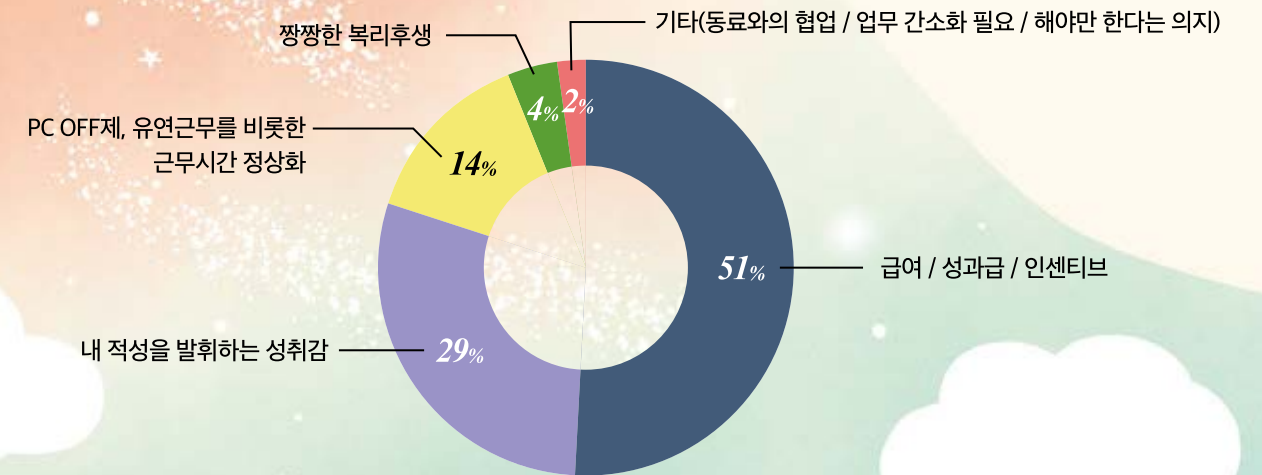
2-1. 업무 몰입도를 **높다**고 평가한 까닭은?

- 조직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업무에 접근하기 때문에
- 대기 고객이 너무 많으므로 높을 수밖에 없다
- 워라밸을 위해 몰입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 나의 몫을 다하기 위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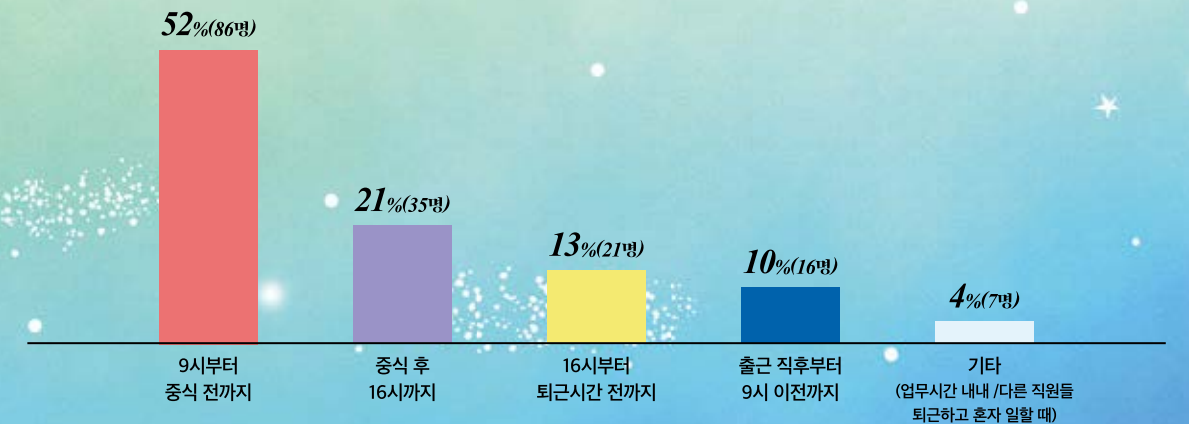
2-2. 업무 몰입도를 **낮다**고 평가한 까닭은?

- 현재 업무가 어렵거나, 부담이 되고, 적성에 맞지 않아서
- 단체 메신저, 고객센터 전화 등으로 업무에 집중이 어려움
- 컨디션에 따라 집중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 권태
- 지점, 업무 분위기, 주의가 산만하다

Question. 03 | 업무 몰입과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되는 것은?



Question. 04 | 내가 가장 업무 집중이 잘 되는 시간대는?



몰입을 최고로 높이는,
우리가족만의 몰입 아이템과 의식은?

몰입하는 직장인은 직장에서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있고, 또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일에서 나의 영향력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족이 소개한 자신만의 집중과 몰입을 위한 아이템이나 의식을 소개합니다.

커피 한잔

- 믹스커피 한잔 마시면서 해야 할 일 목록 정리하기
- 커피 한잔을 준비하고 주변을 깨끗이 하기
- 달달한 커피 한잔, 꿀을 넣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 점심식사 후 커피 한잔으로 오후 몰입도 높이기



계획표

- 세부업무를 정리하고 계획, 실행하기
- 10년, 1년, 한달, 주 단위 계획표를 만들기
- 하루 시간단위 활용 계획하기
- 완료될 때마다 해야할 일을 지워가며 일하기
- 너무 긴 계획보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계획 세우기



이어폰

- 주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이어폰 착용
- 야근할 때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일하기
- 노동요 듣기
- 심신의 안정을 주는 노래나 ASMR



고요함

- 집중에는 고요함이 최고
- 고요함 그것이면 충분
- 주위를 조용하게 하고 업무와 관련 지어 기억하기



잠생각 떨치기

- 휴대전화 멀리하기(서랍에 넣어두기)
- 점심 가볍게 먹기
- 정리하기



책

- 책을 집중해서 읽기
- 책 읽기로 워밍업 후 집중력이 오를 때 본격적인 업무 돌입하기



메모

- 메모지나 수첩에 끄적이다 보면 몰입이 된다
- 해야 할 일도 중요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일을 항상 메모한다
- 메모 습관화



휴식

- 일을 하기 위해 휴식하기
- 워라밸을 지키기, 매일매일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업무 준비

- 개인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PPT를 만든다면 나만의 방식으로 설명을 정리하기
- 관련 자료 씨칭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 나만의 비법노트 등을 만들어 업무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발전 시키기



운동·취미

- 목표와 집중이 필요한 골프로 집중력도, 체력도 단련시키기
- 비즈공예와 같이 구슬을 꿰면서 잡념과 스트레스를 버리고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기
-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어 나태해진 몸을 스트레칭해 분위기 전환하기
-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스트레스 풀기
- 향초, 인센스 태우기



사진으로 보는 CEO 동정

2021. 05. 04

한국금융연수원장 방문



2021. 05. 12

대원강업 본사 방문



2021. 05. 13

한국가톨릭문학상 시상식



2021. 05. 14

월드클래스세르파입무협약식



2021. 05. 24

확대영업본부장회의



2021. 05. 25

농구단 코치진 격려 오찬



2021. 05. 27

디지털혁신포럼



2021. 05. 28

VG영업현장 방문(강동)



2021. 05. 28

고! 고! 챌린지 참여



WOORI NEWS



1 우리금융, 코로나19 극복 위한 방역마스크 긴급 지원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방역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18만 장을 긴급 지원했다. 손태승 회장은 5월 4일 최궁열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상임대표에게 이번 방역마스크 제작 지원을 위한 총 1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마스크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코로나19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지원이 시급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이며, 방역마스크에는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메시지가 표기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AI 금융서비스 공동개발로 디지털금융 경쟁력 '강화'

우리은행은 5월 6일 KT, 한국IBM과 AI뱅크 개발 등 '인공지능 혁신(AI Innovation)'을 위한 삼각 동맹'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우리은행은 금융 노하우와 KT, 한국IBM이 보유한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혁신적인 디지털금융 상품/서비스 개발은 물론, 신사업 발굴을 위한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한 3사의 주요 공동연구 및 개발과제는 ▲기업여신 심사 및 금리네고 자동화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AI 심사역' 고도화 ▲불완전판매 탐지 시스템을 활용한 'AI 내부통제' 강화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반 'AI 뱅커'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금융서비스 개발에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3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 국내 금융권 최초 공식 인증 획득



우리금융지주는 5월 21일 국내 금융권 최초로 준법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37301을 공식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지난 4월에 제정한 준법경영에 관한 국제표준이다. 전 임직원에게 조직 내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을 수립·유지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요구하고 있다. ISO 37301 인증 취득은 준법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업무 중에 발생 가능한 준법리스크 발생 요인을 예방하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우리금융그룹의 준법경영 활동에 관한 객관적 검증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우리은행, '연세대학교 전용 스마트캠퍼스 구축' 업무협약 체결

5월 7일 우리은행은 연세대학교, 네이버와 함께 '연세대학교 전용 스마트캠퍼스 공동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네이버와 디지털 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번 스마트캠퍼스 구축이 첫 번째 공동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세대학교 ▲간편결제 '연세페이' 서비스 ▲디지털 화폐 '연세코인' 개발 ▲우리은행과 네이버 자체 인증서를 통한 학생·교직원 온라인 인증 서비스 ▲강의/조별 과제물 협업·공유, 실시간 퀴즈, 스케줄 관리 서비스 ▲인공지능 및 교육 빅데이터에 기반한 블렌딩 교육 및 학습 솔루션의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WOORI NEWS



인도에 코로나19 기부금 10만 달러 긴급지원

5

우리금융지주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동참하고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도에 미화 10만 달러(한화 약 1억 100만 원)를 긴급지원했다. 5월 12일 우리금융지주는 4월 말 기준 일일확진자 약 38만 명, 누적 확진자 약 1,875만 명, 사망자는 약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인도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우리금융지주는 인도 현지 비영리기관 'United Way India'에 기부금 1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해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등 의료장비 구매, 임시 환자 병원 및 병상 건축 등을 비롯한 의료체계 복구와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및 식료품 제공 등을 통한 지역사회 지원에 사용한다.

우리은행, 원화 'ESG 후순위채권' 3천억 원 발행 성공

6

우리은행은 5월 13일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원화 ESG 후순위채권(조건부자본증권)을 10년 만기, 연 2.64%의 고정금리로 발행에 성공했다. 이번 ESG 후순위채권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금융에 사용하는 '그린본드'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소셜본드'가 결합된 지속가능채권으로, 우리은행 최초의 ESG 후순위채권이다. 또한, 이번 ESG 후순위채권 발행으로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7.34%에서 17.54%로 0.20%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채권의 만기는 10년이며, 연 2.64%의 고정금리로 발행됐다. 발행금리는 국고채 10년 금리에 발행스프레드 0.50%p를 가산한 금리로, 발행스프레드는 바젤Ⅲ 도입 이후 발행한 채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7

우리은행 알뜰 해외송금 8개 국가로 확대

우리은행은 5월 27일 모바일전용 소액 해외송금서비스인 '알뜰 해외송금' 대상 국가를 기존 5개국(미국,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에서 8개국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추가된 국가는 캐나다, 독일, 스페인 총 3개국으로, 알뜰 해외송금으로 총 8개국, 각 국가별 현지 통화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 확대와 더불어 해외은행코드를 숫자로 입력하면 은행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해외은행코드 검증 프로세스도 도입하여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 지난해 7월 출시한 '알뜰 해외송금'은 간편하고 저렴한 모바일 전용 해외송금 서비스로 우리WON뱅킹을 통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없이 연중 24시간 간편하게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1천억 규모 유상증자 실시

8

우리금융저축은행은 5월 6일 이사회를 열고 1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안건을 결의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이번 증자안 결의로 자기자본이 2천억 원대로 늘어나 업계 10위권 수준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유상증자를 계기로 초우량 디지털 서민금융회사로 한 발 더 도약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는 물론, 서민금융 중심의 중금리 대출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금융그룹의 성장 기반 확대 경영전략에 부합해 영업 경쟁력 강화로 그룹의 수익성 확대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하고, 주금납입을 통해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증자가 완료될 예정이다.



WOORI NEWS



우리금융캐피탈 100% 자회사 편입 결의

9

우리금융지주는 5월 21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우리금융캐피탈을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우리금융캐피탈의 자기주식 3.59%를 매입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해 우리금융캐피탈 보유지분율이 90.47%로 상승하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금융캐피탈은 자기자본 차감항목인 자기주식 매각분만큼 자본확충 효과를 얻게 되어 향후 자산증대를 통한 수익력 제고도 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도 결의했다. 이는 지주사 신주를 발행해 우리금융 캐피탈 소액주주들에게 교부하는 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으로, 우리금융지주는 오는 7월 이사회 승인을 거쳐 8월 중 주식교환을 완료하면 우리금융캐피탈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우리카드, 5개 금융사와 데이터 협력 위한 MOU 체결

우리카드는 국내 5개 금융사와 데이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5월 21일 체결했다. '금융 데이터담'에 참여한 사업자는 우리은행을 비롯해 교보생명, 미래에셋증권, 한화손보, NICE평가정보사이며 이날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6개사의 주요 인사가 참석하여 금융데이터 연합을 약속했다. 이들은 언제든지 개별 기업이 보유한 고객의 가명 처리된 정보를 수집, 결합, 분석 가능하며 향후 데이터 사용을 위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정례화하여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결합된 데이터는 금융데이터거래소(FinDX), 한국데이터 거래소 등에서 구매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10



우리카드, 우리페이 기반 결제 서비스 강화

11

우리카드는 계좌결제 서비스 확대 및 소액신용 한도 서비스 출시 등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지급 결제 서비스를 대폭한다고 5월 3일 밝혔다. 지난 1월 출시된 '우리페이 계좌결제 서비스'는 기존 우리은행 포함 총 11개 은행 계좌를 연결해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우리 WON카드 앱에 통합된 우리페이에서 해당 은행 계좌를 365일 24시간 손쉽게 등록 가능하며, 우리페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즉시 출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네이버 페이 등 빅테크의 소액후불 결제 서비스에 대응하여 최대 30만 원 신용 한도를 제공하는 '소액신용 한도 서비스'도 우리WON카드 앱에 오픈됐다. 또한, 뱅킹앱 최초로 우리WON뱅킹 앱에 우리페이를 적용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우리페이를 기반으로 그룹 통합결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12

우리펀드서비스-피어테크, 기업용 디지털 자산관리 솔루션 출시

우리펀드서비스는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을 운영하는 운영사인 피어테크와 기업용 디지털 자산관리 솔루션을 출시했다. 제도권 금융사가 가상자산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부터 나선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5월 21일 우리펀드서비스와 피어테크는 디지털 자산관리 솔루션의 첫 참여사로 다날핀테크와 세종텔레콤, 비브릭, 에이치닥테크놀로지(HDAC), 코인플러그 등이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참여한 기업들은 제도권 수준의 디지털 자산 관리를 통해 활동을 가속화하고, 적절한 처리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며 산업 전체의 투명성을 위한 기준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폐쇄 위기를 넘어, 왕중왕전을 노린다!

경기남부영업본부 수원VG 수원복지점

재작년까지 수원복지점은 폐점 대상에 올랐던 영업점이었다.
직원들의 사기는 꺾일 대로 꺾여 시도마저 힘들던 그곳이
이제는 패자부활전이 아니라 왕중왕전을 노린다.
지점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수원복지점을 찾았다.

글: 김민선 사진: 정우철(스튜디오집)

“수원복, 승리의 복을 올려라!!!”

“재작년까지만 해도 폐점 대상 점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실제 3년 연속 폐점 대상 리스트에 있던 지점이었거든요. 영업 상황도 좋지 않았고, 점포 주변 환경도 안 좋아지는 상태지만, 폐점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말씀 드렸었습니다.”

폐점을 앞두었던 수원복지점은 1년 5개월 전, 김남식 지점장이 새로 오면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됐다. 이제 경기남부영업본부에서도, 수원VG에서도 정상에 있는 점포다. 지점장을 포함한 11명의 직원들이 뚝돌 뚝돌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 사실 처음부터 모든 게 잘 됐던 것은 아니다.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던 만큼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져 있었고 그 부분이 가장 문제였다.

“직원들이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상황과 그에 따른 분위기가 문제였어요. 매년 지점은 폐점 대상이라고 하는데, 가장 손익이 많이 나는 업체와는 DLF 손실이 커 관계 회복에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죠. 거래처 타행 이탈 상황까지 겹쳐 최악으로 돌아가다 보니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 조직 정비부터 시작하자고 결심하게 됐어요.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직을 재정비하자 비로소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한 직원은 한 해 동안 카드 실적이 40장에 불과했는데 이후에는 매달 100장의 실적을 올리더라고요.”

정진만 로비매니저

김성희 과장

김남식 지점장

박누리 대리

김영란 부지점장

김영옥 차장

전경자 계장

정다희 과장

박새미 대리

김민지 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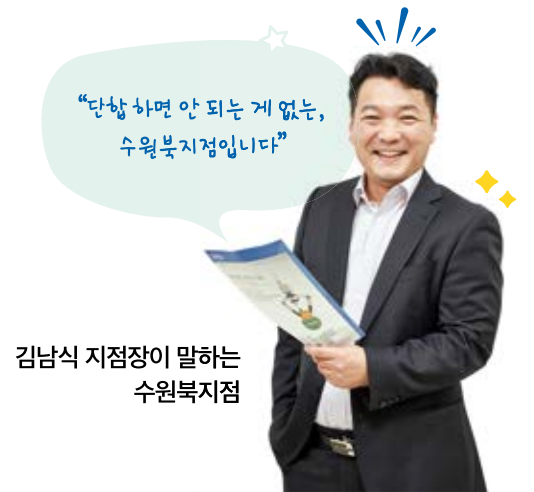
정현욱 계장

김유석 과장



| “합이 착착맞는 예금팀입니다” 예금팀 |

어려운 일도 척척 해내시는 멋진 팀장님의 지휘 아래 팀원 간의 합이 착착 맞는 예금팀입니다. 어떻게 권유하면 더 실적을 잘 낼 수 있을지 늘 함께 고민하고, 업무가 많을 때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김남식 지점장이 말하는
수원복지점

힘들수록 더 뚝뚝 뭉쳐야 한다는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이뤄진 영업점 내 보직 이동은 실제 빛을 발했다. 단순히 자리를 바꾼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영업 역량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다보니 개별 실적이 상승하는 결과까지 만들어낸 것. 그렇게 몰입한 직원들은 몰입의 즐거움과 흥미를 잃지 않고 잠재력을 깨워 나아가는 중이다. 김남식 지점장은 변화하는 영업점의 모습을 두고 “모래알 같았던 직원들이 현재는 찰흙처럼 뚝뚝 뭉쳐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며 직원들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모두가 즐거운 영업점 생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점장의 역할은 방향을 제시하는, 영업으로 시작해 영업으로 끝날 수 있도록 자리를 잡는데 집중했죠.”

역전의 명수

활기가 돌아 힘차게 나아가는 수원복지점. 하지만 수원복지점의 주변 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다. 수원복지점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현재 수원성 안쪽으로 문화재 보호를 위해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지점 인근 성외곽으로는 신축 및 증축이 제한됐다. 이는 더 이상 이 지역에 ‘호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지점 뒤로는 소규모의 유흥상가들이 즐비하며 상권과 인구는 인계동과 영통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이제는 이러한 이야기가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는다. 당장 지점의 위치를 바꿀 수는 없기에 이 어려움 또한 ‘위기는 곧 기회’로 바뀌나갈 에너지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입지 조건 탓에 고령층 및 중국인 고객이 증가해 타 점포 대비 내점 고객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 영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요. 일시적인 손익증대로 인한 수익 창출에서 탈피해 시야를 넓혀 입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복지점이 2021년 상반기까지 이뤄낸 성과는 경기남부 영업본부, 수원VG 1위 달성이다. RAR 부문에서 VG 내 1위를 고수, 최근 파생상품 및 방카슈랑스를 통한 손익을 창출했다. 여신 증대만 해도 1,500억 원이 증대됐다. 김영란 부지점장은 “자산 증대의 기본이 펀드, 방카, 파생상품 활성화를 비롯해 매달 꾸준한 수익을 주는 여신 증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단대출을 4개나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수원복지점은 협업이 아주 잘 되어서 시간과 공이 많이 드는 집단대출을 지점 전체가 누구의 일이라고 할 것 없이 서로 도와주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석 같은 직원들이죠”라고 말한다.



툰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수원VG와 함께

김남식 지점장은 수원복지점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로 VG 간의 협업을 꼽았다. 지점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협업을 통해 동반성장 하는 VG 시작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내고 있다고 전했다. “VG 내 점포 간 서로 단점은 보완해 주면서 부족한 실적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요. 각 영업점들이 VG를 중심으로 직원 간 교류로 협업하고, 업무 관련 스터디를 함께하며 신규 업체를 공동 발굴하면서 모든 일이 톰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에너지를 쏟아왔다면, 하반기에 접어든 지금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본격적으로 보여줄 때라는 김남식 지점장. 수원복지점은 하반기 영업 전략으로 그동안 이야기를 나눈 기업체 등을 통한 중기여신 달성과 비이자 부문에 대한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다. 하반기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남식 지점장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묻어난다. “경기남부영업본부에서 더 나아가 우리은행 영업점 중에서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지점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총량 증가 및 거래처 발굴을 통한 중심 영업점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죠. 지속적인 거래처 발굴은 기존 고객 관리가 돼야지만 가능한 일이기엔 현재 가장 주력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객이 없으면 우리도 없기에, 우량 기업체 유지를 위해 오늘도 매일 매일 계획을 세우는 지점장.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서로가 시너지가 되는 수원복지점이 되겠습니다.”

| “여러분이 있어 행복합니다” 종합상담팀 |

술선수범 김영란 부지점장님, 친절함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르르 녹이는 박누리 대리님, 살인적인 귀여움과 똑똑함으로 사랑을 독차지 하는 성실의 아이콘 정현욱 계장님, 수원복지점의 히어로! 지점을 위해서라면 발벗고 나서는 김유석 과장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업무지식으로 직원들의 가장 빠른 전용 ‘헬프데스크’ 박새미 대리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있어 행복합니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김혜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분석’과 ‘전망’을 통해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사람들, 금융회사의 경영전략과 금융산업, 금융시장, 거시경제 등 금융과 경제 전반에 대한 연구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곳, 바로 우리금융경영연구소다. 연구소는 연구성과를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 세미나 등을 통해 그룹 임직원과 공유하며 국내 금융업의 오피니언 리더를 지향하고 있다. 이 중 고객의 자산관리 분야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는 김혜원 수석연구원을 만나보았다.

글: 김민선 사진: 임근재

| 회사 소개 |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우리금융그룹의 안정적인 성장과 대한민국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경영전략과 금융산업, 금융시장, 거시경제 등 금융과 경제 전반에 대한 연구활동을 전개한다. 연구본부 내 은행경영연구실, ESG·기업금융연구실, 디지털금융연구실, 자산관리연구실, 경제·글로벌 연구실 등 5개 연구실과 연구지원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성과를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로 발간하고, 세미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룹 임직원 및 금융시장 참여자들과 공유하면서 우리 그룹과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은행·증권사·운용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금융그룹이 당면한 고객 자산관리 관련 이슈들에 대해 연구하는 김혜원 수석연구원입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산관리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먼저, 보고서 작성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많은 국내외 사례와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그룹과 비즈니스에 필요한 개선 방안과 향후 전략 방향을 도출하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만의 보고서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 보고서 중 언론에 자주 인용되는 보고서로는 ‘대중부유층 보고서’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된 보고서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중부유층이라는 고객군에 대해 분석한 특화보고서입니다. 3년간 시리즈로 작성이 되었고 올해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편입된 자회사들의 경쟁력이나 PB·CIB 등 특정 영업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컨설팅 보고서’, 미국·베트남 등 우리금융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금융산업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도 연구소의 주요 보고서입니다. 다양한 벤치마킹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선도 사례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작년부터 월간 <우리리서치 플러스>*를 제작해 대외적으로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외부 컨설팅사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실제 그룹 내 의사결정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홈페이지(wfri.re.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고서의 순기능은 무엇인가요?

현업에 계신 분들이 미처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 중요하지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고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별 부서 측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전사적인 관점에서 보고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소의 역할이니까요. 그러한 부분에 책임감을 가지고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그리고 보고서 작성 시 가장 염두에 두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는 것이 없다’는 가정 하에 씨칭을 합니다. 아는 정보만을 조합해서 보고서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데이터는 수집뿐 아니라 검증 등에도 유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업을 둘러싼 각종 제도 변화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작성하는 논점과 다른 방향의 피드백을 받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가족들이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실제 영업에 보고서를 활용해 도움을 받으시거나 궁금한 점에 대한 문의를 주시기도 합니다. 보고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더불어 연구가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트렌드를 이해하고 세일즈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고서를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보고서들보다 그룹 내에서 만들어지는 보고서이며 우리금융 그룹 경영전략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방향성과 비전을 살펴 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이 궁금합니다

연구소는 향후 연구성과물의 공유 확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우리금융인)와 SNS 기반 그룹 임직원 대상 연구보고서 구독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보고서를 확인하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주제를 발굴하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하여, 이를 수많은 컴퓨터에서 동시에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인 ‘블록체인’은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디지털 신기술의 하나이다. 2007년 최초 고안된 블록체인 기술은 2009년 해당 기술이 적용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개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 현재는 이러한 가상통화 뿐만 아니라 전자 결제나 디지털 인증, 화물 추적 시스템, 예술품의 진품 감정, 병원간 의료기록 공유 관리 등 신뢰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거나 접목시켜 개발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일어나고있는 바, 특히 신기술을 활용한 대안대출(Alternativelending) 시장이 꾸준히 확대되는 분위기 속에서 전통 은행들도 점차 대출 비즈니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 대출 부문, 주택·토지담보대출부문, 그리고 증권담보대출 부문을 예로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

정리: 브랜드ESG그룹 박해철 과장 자료제공: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황나영 수석연구원

블록체인 기반 대출 도입 사례와 시사점

블록체인 기반 중소기업 대출 증가

중소기업 대출 부문에서는 중국의 마이뱅크와 공상은행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마이뱅크는 모회사 앤트그룹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물류 플랫폼에 등록된 20만 명의 트럭 운전자와 소규모 물류 사업자들이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저장된 주문 내역과 송장 번호 등 주요 물류 정보와 분산 신원검증을 기반으로 중소 사업자의 신용도를 정확하게 산출해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금융 기록이 많지 않아 기존에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식품업체 대리점에 대해서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주문 이행기록과 물류기록 등을 토대로 한 신용대출을 제공하여 2016년 277만 명에 불과했던 중소기업 고객이 2020년 2,900만 명까지 10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상은행을 비롯한 129개 은행은 광둥성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에 참여해 대출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고 신용등급 책정이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을 고객으로 포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중소기업 대출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블록체인 활용으로 심사와 중개 비용을 최소화

주택·토지담보대출 부문은 미국의 핀테크 회사인 Figure Technology가 대표적인데, P2P 블록체인 네트워크 Provenance를 구축해 모기지 리파이낸싱,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객은 은행 등에서 제시한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되며 블록체인 활용으로 심사와 중개 비용을 최소화하여 대출 이자를 17bp 가까이 저렴하게 제시할 수 있어 고객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 장기적인 업무 확장을 위해 Figure Technology는 2020년 말 통화감독청에 은행업 인가를 신청하는 등 다음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증권담보대출에서도 블록체인 접목 늘어

증권담보대출 부문에서는 기업 ING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블록체인 관련 기술회사인 HQLAx를 이용하여 크레딧 스위스와 2,500만 유로의 실시간 유가증권 담보대출을 성사시켰는데, 기존 방식의 증권담보대출이 여러 중개인이 거래에 관여하고 당사자 간 기초증권 양도 과정에서 수일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참여 금융회사의 분산원장을 공유함으로써 실시간 이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져 유동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ING는 2020년 3월 HQLAx의 지분을 취득하고, 향후 금융 서비스에 블록체인 접목을 늘려갈 계획임을 밝혔다.

데이터 조작이나 불이행 등의 위험을 원천 제거 강점

위와 같은 사례로 볼 때 나타난 블록체인 기반 대출이 가진 여러가지 장점을 우리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산원장을 활용하여 거래 신뢰성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대표적인데, 신원이 검증된 주체가 참여하고 합의를 통해 분산원장에 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거래 투명성이 확보되며 리스크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네트워크 내의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며, 거래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원장에 블록체인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정보 조작이 불가능한 점, 스마트 계약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대출 심사 및 승인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는 장점이다. 대출 과정 자동화로 프로세스 진행 속도를 높이고, 개별 관리자가 아닌 네트워크를 통해 계약 실행을 관리함으로써 조작이나 불이행 등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탈중앙화된 시스템으로 중개기관 역할과 인력 투입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도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블록체인 네트워킹 추진, 금융 차원에서 참여 검토 해야”

블록체인을 활용한 대출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점차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신한은행은 2019년 5월 블록체인 자격검증을 활용한 닥터론을 출시했으며, 1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정책자금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중소기업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개별 은행 차원에서 데이터 확보나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점에 있어서는 중국의 사례처럼 정부나 중소기업협회, 타 금융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검증된 해외 공급망 금융 플랫폼을 가입,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서두에서도 밝혔듯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활용되고, 지속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의 측면에서도 이미 해외송금 서비스나 디지털 통화, P2P 형태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은 바, 장기적으로 볼 때 대출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접목은 지속적인 개발 및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가족 마음 톡!



우리가족끼리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메신저!

받는 분에게 메시지와 커피 기프티콘을 전달해 드립니다. 우리가족에게는 우리가족의 응원이 보약입니다.

To. 교대역지점 이지현 과장

너를 보면 긍정의 힘이
절로 나와서 난 행복해.
본인보다 늘 주변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매력자, 너와 함께 할수 있는
지금이야 무척이나 감사하고 고마워^^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가자 사랑해 지현아~~



From
화양동지점 이현정 부지점장

To. GSE타워금융센터 장유림 부지점장

언니, 힘들었던 순간
곁에 있어주어서,
어찌해야할지 몰라 하는 내대신
먼저 챙겨주어서 정말 감사해요.
언니가 있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



From
시흥동지점 두애희 부지점장

To. 노은지점 신진숙 과장

언니는 제가 항상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존재자체만으로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예요.
여러 가지로 마음 쓸 일 많지만 그래도
여름엔 시원한 아아 드시면서
잠시나마 머리 식히는
힐링 타임 갖기를 바랄게요..
제가 언니 항상 응원하는거 알져?***



From
천안중앙금융센터 김선희 대리

To. 범일동지점 황보연주 부지점장

10대 못지 않는 열정과 의욕으로 가득하신
이름도 이쁜 우리 황보연주 부지점장님!
우리창구에서 늘 열심히 하시고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팀장님께
시원한 아아 한잔 드시면서 힘내시라고
메시지 전달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잠잠해지면 아아 대신
맥주 한잔 해요~! 사랑합니다 화이팅 !!!



From
부곡동지점 이유정 대리

To. 동탄사랑지점 최경순 주임

출장소에서 근무할 때,
혼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해야하니
버거울 때도 간혹 있었어요. 항상 내일처럼
도와주고, 때론 엄마처럼 때론 언니처럼,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같이 일했던 시간은 짧았지만,
주임님과 함께한 시간이 참 소중했고,
인생의 소중한 친구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주욱 힘들때 즐거울때 생각나는
사람으로 서로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



From
화성정남지점 남지윤 대리

To. 여의도북지점 박지애 대리

늘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사는듯 하지만,
봄이 오니 어김없이 생각나는 사람은
너이더라. 함께 걷던 여의도 벚꽃길과 함께
먹던 김치우동정식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는 봄날. 이 주체할 수 없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또 좋다.
그림지만 그리울 수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 소중한 행복을 즐기자.
우리는 봄 타는 여자들이니까.
사랑하는 대리님 보고싶어!♡



From
연금사업부 이영비 과장

To. LG트윈타워기업영업지원팀 최경진 대리

우리 쌍둥이 아버지 경진이형~
육아에 치여사는거 같아서 안타까워!
결혼하고 신혼집 놀러가서
BTS 피, 땀, 눈물 불렀던 게 엇그제 같은데...
이제 형의 이야기가 된 거 같아서
기분이 묘하네 ㅎㅎ
항상 조언해줘서 고맙고,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성장해나가자!



From
미아동지점 민병윤 대리

To. 역촌동지점 고동욱 대리

동욱아~
동기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모임도 기획하고
공지사항도 잘 전달해 줘서 고마워..
비록 지금 코로나때문에
잘 만나기 어렵지만,
조만간 다시 만나자!



From
송우지점 배성민 대리

To. 화성봉담지점 김난희 차장

나니차장님♥차장님의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다정한 말투가 그리워용> <
업무실수를 할 뻔하면, 고객 몰래 조용히
메신저로 정정해주시던 차장님의
배려심ㅠ.ㅠ 매일 가장 늦게 퇴근하시면서
업무 정리하시던 회생정신ㅠ.ㅠ 걸어다니는
여신 규정집이셨던 스마트함ㅠ.ㅠ 점심도
맨날 사 주시던 재력까지ㅠ.ㅠ 차장님은
정말 너무 완벽하셔용♥봉담에서도 즐겁게
지내고 계시겠지만, 차장님을 따라하는
저를 잊지마세여> < 해했



From
권선지점 구정미 계장

To. 망우동지점 정혜라 과장

매번 웃는 얼굴로 성심성의껏
업무 알려주신 과장님~ 매번 느끼지만
과장님을 보면서 저도 나중에 그런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는 합니다.
매번 1년 반 동안 변함없이 항상 즐겁게,
또는 파이팅 넘치게 업무 하시는 과장님을
보며 배우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른 점포로 이동하여 헤어질
날이 오겠지만, 제가 자주 찾아뵙고,
연락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From
망우동지점 이대현 계장

2021여름나기 우리사랑기금 공모사업

WOORI와 함께하는 3UP! 건강한 여름나기

글: ESG기획부 김보라 대리



우리가족의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전국 우리가족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기금이 매년 여름과 겨울,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월 우리은행 임직원이 급여의 일부를 기부하여 조성한 기금인 '우리사랑기금'은 2009년부터 13년째 전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임직원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로 조성된 후원금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전국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가올 무더위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신청 받아 전국 15개 시설에 각 5백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 7월에는 '우리사랑기금'의 진정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스페셜 홍보영상도 제작되어 우리은행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SNS를 통해 배포될 예정인데요. 우리가족 한 명, 한명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큰 사랑으로 전달되는 행복한 동행. 직원 여러분의 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사랑기금'이란?

우리사랑기금은 사회공헌활동을 목적으로 우리은행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조성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 재해복구 지원, 결식아동 돕기 지원사업, 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국내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여름나기와 겨울나기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1년 여름나기 우리사랑기금 공모사업

"WOORI(우리)와 함께하는 3UP! 건강한 여름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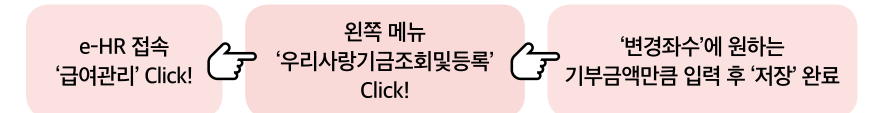
올해 우리은행은 'WOORI(우리)와 함께하는 3UP! 건강한 여름나기'란 주제로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소외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학습 증진사업, 급식/건강개선사업, 친환경/환경보호사업 등 3가지 컨셉의 사업을 공모해 총 15개 사회복지시설에 각 5백만 원의 기부금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최우수사업으로 평가된 1개 기관에는 총 5백만 원 상당의 KF94 방역 마스크, 여름철 벌레 퇴치제, 휴대용 선풍기, 각종 먹거리 등이 포함된 '여름나기 키트'도 함께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에 6월 10일, 본점 4층 도전룸에서는 임직원들이 모여 여름나기 키트를 포장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 "WOORI(우리)와 함께하는 3UP! 건강한 여름나기"

- 지원 대상 : 전국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15개소 / 각 5백만 원
- 공모 내용 : ① 에듀[업] (Edu-Up) : 여름방학맞이 '학습증진사업'
② 헬스[업] (Health-Up) : 건강한 여름나기 '급식/건강개선사업'
③ [업]사이클링 (Up-Cycling) : 아픈 지구 지키기 '친환경/환경보호사업'

'우리사랑기금'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지금 함께해주세요!

우리사랑기금 참여방법



'우리사랑기금'에 함께하는 우리가족이 많아질수록,
함께하는 행복은 배가 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클래스 운영과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 및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풀리지 않게 단단하게

macramé

마크라메 매듭처럼 오밀조밀한 우정

여신관리부 황주원 과장 · 종로YMCA지점 이경선 차장 · 화성남양지점 최경혜 차장 · 자금세탁방지센터 김혜진 계장

하루하루 일상은 찰나처럼 스쳐 간다.
하지만 어떤 순간은 생생한 기록으로
남아 오래도록 추억으로 이야기된다.
사진 동호회에서 만나 10년 가까이
우정을 나누어 온 네 사람은 함께
공유하는 기억들이 참 많다. 그래서
이 하루도 색다르게 보내고 싶었다.
이제껏 더불어 지내온 인연이라는
끈을 더욱더 풀리지 않게
단단한 매듭으로 잇고 싶은
바람을 담아.

글 정리희 사진 정우철

‘사진’으로 통한 우리

말은 업무도 입행연도도 다양하지만, 그들은 ‘친구’다. 네 사람이 언제부터 친해졌는지 정확하게 했수를 세어본 적은 없지만 열주 켜 해 봐도 10년은 넘었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다름 아닌 사진. 행내 사진 동호회인 ‘빌라이트’ 회원으로 함께하면서 그동안 전국 방방곡곡 누비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을 사진으로 남겼다. 카메라가 담은 것은 그저 풍경만은 아니었다. 금요일 저녁 혹은 주말 이른 아침, 카메라 가방을 챙겨 들고 출사여행을 다녔던 세월은 자연스럽게 네 사람의 우정을 깊게 해주었다.

“아무래도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까 통하는 게 많아요. 이제까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별 일 없으면 한 달에 한 번은 출사여행을 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모두 취소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한 번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원데이클래스 신청엽서를 보냈습니다.”

최경혜 차장의 말이다. 출사여행이 기약 없이 미뤄진 사이 휴대폰 메신저로 ‘밥 한번 먹자’는 말을 하기도 여러 번. 하지만 최 차장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터라 네 명이 한 번에 모이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최 차장이 먼저 자리를 만들어주었으니, 세 사람은 그저 고맙기만 하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같이 지켜본 사이잖아요. 저는 특히 출사 여행을 갈 때마다 아이들을 항상 데리고 갔거든요. 엄마 취미 활동을 위해 주말마다 불평 없이 따라와 줘서 무척 고마웠는데, 얼마 전에 사진첩 정리하면서 옛날 사진을 보니 추억이 새록새록 솟아나더라고요.”



MINI INTERVIEW



종로 YMCA지점
이경선 차장

손재주가 없는 편인데 친구가 도와준 덕분에 좋은 추억 하나 가져갑니다. 예전에 동호회에서 출사여행을 갈 때는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까지 함께하는 시간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지금 돌아보니 모두 감사한 시간이에요. 앞으로 도 꿈과 열정을 나누는 좋은 관계로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라요.



화성남양지점
최경혜 차장

체험하는 내내 친구들이 즐거워서 독자업서를 보낸 저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어요(웃음) 요즘 당첨 운이 정말 좋아서 계속해서 좋은 일이 생기려나 괜히 기대도 됩니다. 사진은 물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겨 하는데, 마크라메 공예처럼 손으로 하는 취미도 새롭게 가져보고 싶네요!

이경선 차장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쌓인 추억담을 풀어놓는다. 황주원 과장은 “사진을 좋아하는 엄마를 보고 자라서인지 딸도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다”고 귀띔했다. 이런 가족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 만큼, 네 사람은 서로의 삶을 오래도록 곁에서 지켜본 사이이다.

매듭 공예 ‘마크라메’로 추억 땡기

오랜 기간 사진을 찍어왔기에 새로운 공간과 경험에 활짝 열려 있는 네 사람. 그런 그들에게도 마크라메는 처음 접하는 분야였다. 여러 가닥의 실을 엮어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 마크라메는 13세기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매듭 공예. 벽이나 창문에 거는 월 행잉이나 장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드림캐처 등도 제작할 수 있지만, 이날 네 사람은 평소에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을 만들기로 했다. “손으로 하는 취미 활동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왕 체험하는 거 제대로 즐겨보자는 생각에 앞치마도 새로 사고, 드레스코드도 맞췄습니다.”

황주원 과장이 마크라메 공예 체험을 향한 기대감을 이야기한다. 마크라메 공예로 가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실과 봉 그리고 S자 고리면 충분하다. 매듭을 짓는 기초만 익힌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어 꽤 유용한 취미활동이기도 하다. 봉에 걸어 길게 늘어뜨린 실을 손가락으로 살포시 집어 든 네 사람.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한 줄, 한 줄 평매듭을 지어 나가며 가방의 본체가 될 그물의 형태를 만든다.

처음 접하는 마크라메 공예이지만, 이왕이면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네 사람의 손아귀에 가득 실린다. 같은 디자인의 가방을 만들지만 각자의 취향에 따라 손의 힘에 따라 가방의 형태에도 개성이 담긴다.



함께 엮어가는 새로운 꿈과 일상

길게 늘어뜨린 실을 엮어야 하기에, 마크라메 공예를 할 때는 계속 서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이른 새벽 출발하는 출사여행에 오랜 기간 단련되어서일까. 네 사람은 토요일 오전부터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체험에도 진심으로 몰입하며 가방의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 그 사이, 처음 접하는 공예 활동을 향한 설렘과 넷이 함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한다는 기쁨까지 하나로 엮인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추억을 같이 쌓아왔어요. 일출 촬영에서 그 보기 어렵다는 오메가도 봤고요. 태양이 떠오를 때 주변에 맺히는 빛의 잔상이 그리스 문자인 오메가(Ω)와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거든요.”

어느새 형태를 갖추어 가는 가방을 보면서, 김혜진 계장이 다시 꺼내 놓는 추억담은 역시 사진 이야기다. 사회생활을 하기만도 바쁜 세상에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세월을 같은 꿈과 열정을 키우며 지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 자칫 무료할 수 있었던 코로나 시국에 마크라메라는 색다른 체험은 넷이 함께할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는 계기였다. 누군가 그랬던가. 우정이란 비슷한 점에 끌려 다른 점 덕분에 더욱더 깊어져 간다고. 앞으로도 네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물 들어가며 같은 꿈과 추억을 이야기할 것이다. ☺



MINI INTERVIEW



여신관리부
황주원 과장

입사연도로는 후배이지만 나이는 제가 많은 편인데 만나면 그런 어색함이 전혀 없어요. 취미와 성향이 비슷해서 진짜 친구들과 노는 기분이고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자연을 보고 즐기고 젊음과 꿈을 나누어 온 날이 무척 소중한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여서 정말 행복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자금세탁방지센터
김혜진 계장

예전부터 사진을 좋아해서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자주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런 취미를 언니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으니 추억이 더욱더 다채로워졌어요. 이번에 마크라메 공예를 한다고 하니 주변에서도 ‘저도 신청해볼까요?’ 하고 관심을 두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 편안한 상담, 솔루션 제안 감사합니다 ”

글: 김민선 사진: 정우철



고객 만족 이야기

용문역 지점 최민 대리님을 만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대출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신 후 금융평가 등급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방문을 요청해 주셔서 다시 뵈었더니 금리도 신경 써 주시고 대환 진행도 한번에, 논스톱으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설명부터 진행까지 모든 과정과 단계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는 것은 물론, 친절하고 편안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는 회사 전체가 용문역지점과 거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최민 대리님이 신경 써 주시는 상황입니다. 제 주변 지인, 사업자 친구들을 모두 소개하고 싶습니다.

Q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1월 입행해 두 번째 발령 지점인 용문역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민 대리입니다. 현재 종합상담팀 개인대출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칭찬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일단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참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고, 더 열심히 친절하게 고객응대를 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였습니다. 저의 작은 배려로 시작된 관심과 친절이 마치 나비효과처럼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구나 라고 깨닫기도 했습니다.

Q 칭찬을 받으신 당시 상황이 궁금합니다

신혼부부 고객님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니 저축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 때문에 신용평점 하락이 있었습니다. 또 고금리의 대출이자의 원리금 상환으로 생활고를 겪으시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업무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심사 진행 시 개인사업체 재직기간이 이제 막 1년이 경과한 시점이라 타행 대출은 거절을 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출심사를 진행했습니다.

Q 고객님에게 제안드린 내용은 무엇인가요?

신용평점 관리를 우선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저축은행 여신이 상환되면 신용평점이 소폭 상승할 것이기에, 추가로 신용평가회사 신용가점서비스 등록, 6개월 가량 단계적으로 여신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죠. 이후 당행 여신 대한진행으로 신용평점 상승 확인 후 당행 기존대출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재방문을 안내해 드렸고, 결국은 저금리 대출로 최종 대환이 진행돼 기뻐하는 고객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재직중이신 회사 직원분들도 소개로 오시게 되면서 기존 거래 기여도가 낮은 차주 재직사의 거래도도 소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Q 평소 고객 응대 시 역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친절함과 신속·정확성입니다. 첫인상이 결정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4~6초 사이라고 합니다. 친절함은 고객의 긴장을 풀어주고, 업무진행을 매끄럽게 하는 작은 힘이 있습니다. 고객님과 직원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이라도 허물어져야 최상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목표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실적도, 승진도 중요하지만 ‘고객 없이는 은행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함 응대로, 주거래 고객이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더 찾고 싶은 은행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고객님의 기억에 오래 남는 은행원이 되고 싶습니다.



놓칠 수 없는 칭찬

“친절한 서비스에 저도, 어머니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칭찬 직원
허미인 울산중앙금융센터 과장

얼마 전 은행을 다녀오신 어머니가 울산중앙금융센터 허미인 과장님에 대한 칭찬 글을 꼭 써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오랫동안 외국에 계셔서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는 은행 업무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는데, 허미인 과장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상품설명도 꼼꼼하게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어머니가 좋은 서비스에 감동을 받으셨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은행 거래가 없지만 과장님 덕분에 좋은 이미지가 남아 다시 우리은행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미인 과장님 언제나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여름 숲에서, 길을 잃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어느새 마음이 부풀고 들뜩니다. 이제 어디라도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여름의 거대한 숲 한 가운데, 너무 깊어 길을 잃을 것 같은 숲의 한 가운데서 기세등등했던 전염병의 시절에 손을 흔들어 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의 계절로 가겠습니다.

글. 이현아 사진. 마리안 블로거(네이버블로그 '마리안의 여행이야기'), 한국관광공사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언제부터인가, 수목원이 그리운 순간이 생겼습니다. 사람에 치이고 혼자인 나 자신이 그리워질 때가 그렇습니다. 애초에 수목원이라는 것은 관찰이나 연구의 목적으로 식물을 수집해 재배하는 시설을 이룹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공간에 어떤 종류의 위로가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격하게 혼자이고 싶어지는 순간 수목원이 그리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목원에서 꽃과 나무 사이를 하염없이 걷노라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결국 언제라고 길의 끝이 나타나기야 할 테지만 그 시간 동안의 인적 드문 적막을 만나는 경험은 매우 소중한 희귀합니다. 하염없이 멀어지는 길과, 그 사이에 꽃과 나무들이 살뜰한 친구가 되어주는 공간. 그곳에서 우리는 아주 잠깐이나마 타인의 필요를 덜 느끼며 온전히 혼자가 돼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해서 더욱 귀가 즐거워지는, 바다향기수목원

안산 대부분의 바다향기수목원은 인적 드문 고요를 더욱 짙게 느낄 수 있는 수목원 중 하나입니다. 방문자센터를 지나 나타나는 벽천폭포의 시원한 소리는 수목원에 진입했다는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50종 이상의 식물이 살아 숨 쉬는 전시온실 옆으로 더위를 짝 견어갈 정도로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는 이 수목원의 규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벽천폭포 맞은편에 자란 보리는 넓은 보리밭을 이루고 있습니다.

초여름 물소리와 보리향이 멋들어지게 어우러지는 이 공간은 많은 방문객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다향기수목원은 지난 2019년 개원한 신생 수목원 중 하나로 1천여 종이 넘는 식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의 식물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마어마한 종류의 식물이 각양각색으로 뽑내는 식물의 살아 숨 쉬는 소리와 향이 방문객을



압도합니다. 대중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 시절에 접어든 바다향기수목원은 비교적 인적이 드문 수목원에 속하기도 합니다. 혼자 혹은 둘이서 고독한 시간을 즐기기에 적당한 공간인 이곳은 숲에서 길을 잃는 듯한, 현대인은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뜻밖의 경험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10개 이상 축구장 붙여 놓은 것만큼 넓은 부지의 바다향기수목원을 평일 낮 시간대에 서성이다 보면 드넓은 수목원의 한 가운데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정말로 수목원에서 길을 잃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길을 잃었나 고개를 가웃할 때쯤 연꽃으로 가득한 심청연못에 당도합니다. 바다를 집작케 하는 생태연못 심청연못은 대흥산 계곡물로 조성되었습니다. 봄이면 연못 주변으로 하도 화려한 꽃들이 피어서 보는 이를 감탄케 합니다. 여름에도 연못에 썸 없이 공명하는 개구리 울음소리와 부서지는 햇별이 좀처럼 감탄을 멈출 수 없게 하는 공간입니다.

버려진 외딴 섬에서 시작된, 천리포수목원

서울에서 2시간 30분 가량이 소요되는 태안 천리포수목원은 국내 수목원 중에서도 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수목원입니다. 당연히 보유한 수종 역시 그 자리에 뿌리 내리고 있던 시간만큼의 관록을 자랑합니다. 애초에 버려진 외딴 섬에 심었던 나무 한 그루에서 시작된 이 수목원의 역사에는 한반도에 나무가 가득하기를 바랐던 한 귀화미국인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여전히 인적이 드물고 우거진 나무 그늘이 한껏 고독과 적막을 극대화하는 천리포수목원.

이름만큼이나 큰 숫자의 막연함이 천리포수목원 전체에 은은하게 번져 있습니다. 천리포수목원의 매력은 역시 최근 생긴 수목원과는 달리 손때 묻은 시설들과 장식되지 않은 자연의 결입니다. 데크가 깔려 있지 않아 흙의 질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산책로를 따라 가다 보면 어느샌가 닿는 바다의 모양 또한 화려하지 않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짝이



*
오감을 자극하는 수많은 경험들과 이를
오롯이 즐길 수 있는 한적함을 매력으로
가진 바다향기수목원은 현재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바다향기수목원

• 주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길로 399
• 전화 : 031-8008-6795



*

천리포수목원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
니다. 특히 7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1시간 늦은 오후 7시까지 수목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성인 9천원, 어린이 5천원의 입장
료가 있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천리포수목원

• 주소 : 충남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
1길 187
• 전화 : 041-672-9982



없습니다. 천리포수목원에 맞닿은 천리포해변은 모세의 기적이 펼쳐지는 바다와 그 너머의 낭새섬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낭새섬이라는 이름은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살아 ‘낭새’라는 이름이 붙은 ‘바다직박구리’를 이르는 이름입니다.

봄철 목련으로 이름을 날린 천리포수목원의 여름은 수국의 계절이 됩니다. 탐스러운 수국이 한 차례 피었다 지면, 한층 더 짙어지는 녹음과 갓 비가 내린 것처럼 젖은 흙냄새가 천리포수목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사로잡습니다.

분홍색으로 야무지게 피어나는 배롱이꽃이 활짝 필 때쯤이면 천리포수목원의 여름도 절정에 달합니다. 여기저기 앉거나 쉼만한 혼자만의 장소가 꽤 많은 천리포수목원은 혼자만의 한적한 시간을 보내기에 더없이 적합한 장소입니다. 민병갈 원장이 머물렀다고 알려진 가옥 한쪽의 마루나, 천리포해안을 내다볼 수 있는 해먹도 천리포수목원을 찾는 이들이 변함없이 애정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곱디 고와 여름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하는 천리포해안의 모래사장도 빼놓을 수는 없는 지점입니다. 🌊

혹시 나도 ‘화병’일까? 직장인의 화병 이렇게 관리하세요



한의학에서는 화병 또는 울화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증상은 일종의 신경성 신체화 장애다. 즉 억제된 감정으로 인해서 몸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화병’은 과거에 미국의 정신 건강 의학회에서도 등재된 적이 있었다. 우리말 그대로 ‘Hwa-Byung’이라는 이름으로 등재가 되었었는데, 그것은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문화로 비롯한 특별한 병으로 인정을 하였다는 의미다. 화병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문화’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것이다. 부당한 경험을 하거나 화가 나는 상황이 되어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한번 두 번 화를 억누르고 참다보면 결국 ‘화병’으로 악화되기 쉽다.

화병의 대표적인 증상

- 억눌린 감정이 몸의 증상으로 그대로 표현된다.
- 속에서 열이 오르는 느낌이 있다
-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든다
- 어떤 덩어리 같은 것이 목구멍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있다
- 위에 증상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생기면서 우울한 감정이 든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화가 나고 짜증이 밀려와도 표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화를 참는 일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 있다. 바로 ‘화병(火病)’이다.

글. 가정의학과 이동환 원장

여러 가지 ‘화병’ 증상이 일시적이라면 큰 문제는 없고, 매우 정상적인 반응이기도 하다. 문제는 증상이 계속되면서 결국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경우 단순한 ‘화병’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꼭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으로 악화되기에 화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화를 참지 말고 분출해야 하는 것인지, 화병 예방책을 통해 실천해 보자.

화병 예방책

첫 번째,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알아차리고 이성적으로 표현한다

화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화를 참지 않고 그대로 분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추후 더 큰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화를 분출하는 것 보다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이성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아야 한다.

‘내 감정이 무엇인가? 내가 느끼는 감정이 분노인가, 자괴감인가, 당황스러움인가, 억울함인가?’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러면서 스스로 느끼고 있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알아차린 감정 상태를 그대로 이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다. 물론 나의 이야기를 들어 줄 상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이성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이야기 해 나갈 수 있다면, 아주 운이 좋은 경우이다. 항상 이런 경우가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회를 잡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천천히 이완하는 습관을 가진다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근육들을 스트레칭 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몸의 흥분된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한다.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본다. 그 감정을

꼭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평소에 심호흡과 스트레칭 그리고 마음을 들여다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직장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아주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

리프레임 훈련이 필요하다

리프레임이란, 프레임을 다시 만드는 것이다. 즉 스트레스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리프레임은 실제 스트레스 상황에 닥쳐도 분노, 불안 등의 나쁜 감정이 덜 생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실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만들어진 나의 나쁜 감정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긍정적 프레임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나쁜 감정을 덜 느낀다. 그래서 평소에 이러한 프레임과 관점, 그리고 나의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감사일기’이다. 감사일기는 스스로의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감사함을 느끼게 도와주는 매우 강력한 리프레임 훈련법이다. 꾸준한 감사일기는 분명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준다.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방법은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물론 세가지 모두를 다 할 수 있다면 제일 좋다. 그러나 위 세가지 중 하나, 또는 두 개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어도 직장인들의 화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는 나의 감정도 스스로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



경견완증후군

지금 바로, 허리와 가슴과 어깨를 활—— 짹 펴세요

긴 시간 앉아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우리 가족. 목과 어깨의 통증을 많이 호소할 것이다. 목과 등의 근육이 자주 뭉치거나 팔꿈치, 팔목 등에도 통증이 있다면, 가장 먼저 나의 자세를 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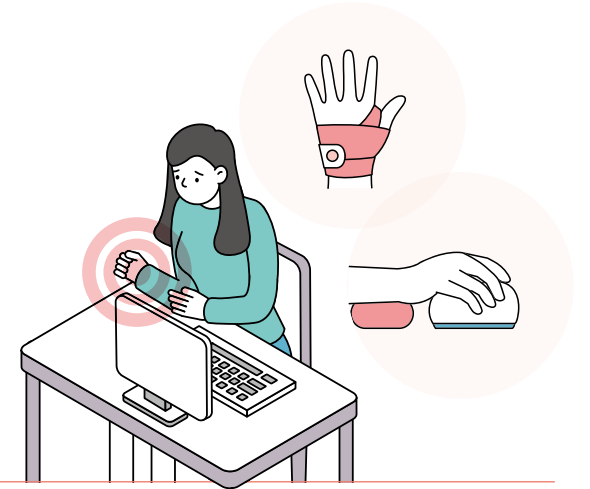
글: 편집실

목과 어깨 근육 긴장으로 생기는 질환

‘오십견’, ‘테니스·골퍼 엘보’, ‘손목터널증후군’, ‘근막통증증후군’ 경견완증후군은 온종일 컴퓨터 자판을 치는 것처럼 상체를 이용해 반복된 작업을 지속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 오십견, 테니스·골퍼 엘보, 손목터널증후군, 근막통증증후군 등 10여 가지 질환이 포함된다. 경견완장해(Cervical syndrome)라고도 하는데 기계를 사용하는 근로자도,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상반신을 앞으로 구부린 자세로 작업을 계속할 경우에 경견완증후군이 나타난다. 경견완증후군의 증상으로는 목과 어깨 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과긴장되고 수축되면 팔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눌리면서 목이나 어깨에 쑤시는 듯한 통증이나 결림이 있다. 팔이나 손, 손가락부위에 저림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근육들의 경직 중에서 목뼈 옆에서 갈비뼈까지 통과하는 전사각근의 과긴장으로 통증이 유발되기도 해 목디스크와 혼동되기도 한다. 전문의에 의하면 목디스크는 목 부위 척추인 경추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빠져나와 신경을 누르면서 어깨나 팔쪽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목디스크 진단 또한 MRI 검사 등으로 쉽게 진단이 가능하다. 반면에 경견완증후군은 의학적인 기계 검사로는 잘 나타나지 않아 세밀한 진찰이 필요한 질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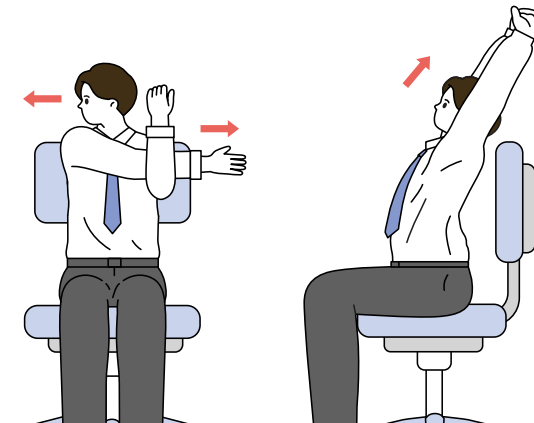
등이 결리고, 팔목이나 손목, 어깨 통증

전문가들은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등에 작열감이나 무감각, 통증, 뻣뻣함 등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한달에 1회 이상 나타나면 경견완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통증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며,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데 MRI나 X-ray선 촬영을 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목디스크와 혼동되기도 하며, 원인이 다양하므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좋다.



1시간에 10분마다 휴식 업무에 두기

경견완증후군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소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올바른 자세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 적절한 휴식 및 스트레칭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1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10분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책상 앞 자세 확인하기

적절한 휴식과 함께 스트레칭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 허리는 곧추세워 등에 골이 만들어져야 하며, 가슴과 어깨는 활짝 펴고 턱을 당기면 좋다.
- 의자에 앉아 있을 땐 무릎의 위치가 엉덩이보다 높지 않아야 하며, 엉덩이와 허리의 각도는 90도가 좋다. 소파처럼 폭신한 곳에 앉을 땐 작은 쿠션을 소파와 허리 사이에 받치면 도움 된다.
- 컴퓨터 사용 시에는 모니터 중심이 사용자의 코에 오도록 모니터 높이를 조절한다.
- 다리를 편안하게 놓을 수 있도록 다리 주변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 있어야 하고, 작업대 높이는 체형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



내 아이의 행복한 순간,
악몽이 되지 않도록

세어런팅

글. 김민선 자료 참조. 세이브더칠드런

예쁘고 귀여운 우리 아이의 모습
오래도록 보관하고 싶어서 혹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 지인들도
지금 이 모습 함께 하고 싶어서 SNS에
업로드하고 있다면? 잠시 확인해 보자.
SNS 공유한 사진이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지키는 ‘세어런팅’
부모만이 아니라 가족, 지인 모두가 나서
확인하고 보호할 때다.

자녀 사진 공유, 범죄 노출 위험

세어런팅은 SNS에 자녀의 사진을 공유하는 것. 공유하다(Share)와 양육, 육아
(페어런팅) 영문 합성어로 자녀의 일상을 SNS에 게시 공유하는 부모를 뜻한다.
습관적으로 자녀의 소식, 이미지 등을 공유하는 것을 정의하기도 한다. 세어런팅은
가족, 지인들에게 자녀의 소식을 쉽게 알리며 자녀의 성장을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고,
유용한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과도하게 자녀의 사진
등을 SNS에 게재하게 되면 게시물과 노출된 정보의 조합으로 상세한 개인정보가
드러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나 향후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아이의 동의 없이 게재돼 초상권이나 사생활 등
아동 권리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게재해야 한다. 실제
유럽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미성년자에게도 디지털 개인정보 삭제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세어런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아이는 4세면
자신을 개인으로 인지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하고, 행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시작하기에 아이들에게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올려도 되는지 동의 후 게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4세 이하 연령의 아이들의 게시물, 아이의 성장을 축하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사진은 가족과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만 공유해야 한다”고 전했다. 🌈



SNS 지금 확인해보세요

- ☐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만
게시물이 보이는지 공개 범위
확인하기
- ☐ SNS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확인하고, 정책이 바뀔 때마다
재설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 기업의 SNS 보안 완벽하지 않고,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변경한다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둘 것
- ☐ 게시물을 올릴 때
자녀의 동의 혹은 의견 묻기
- 온라인에 게시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가 볼 수
있는지 쉽게 알려준다
- ☐ 아이가 나중에 게시물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낄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 ☐ 특정 데이터 공유 여부 확인하기
- 아이들이 자주 가는 장소,
교육기관 정보 등의 노출 여부

*

여기서 잠깐!

- 가족, 지인들의 주의 관심이 더 필요해요
- 내용이나 댓글을 통해 아이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시 : “(아이 이름 기재) 예쁜 옷 입었네”,
“오늘도 (자주 가는 곳, 교육기관 등 정보) 갔어?”
- 공유받은 사진을 부모나 아이 동의 없이 재공유 금지
- 아이 사진이 게재된 사진 공개 범위 등을 함께
확인해 주기



우리가족과 함께 하는 세어런팅

- **주안지점 김아영 과장** •
저는 복직하면서 카톡에 있는 프로필 사진들도 모두 내렸어요.
우리 모두 내 가족 지키기 노력해요.
- **철도타워지점 김연주 계장** •
소통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사생활이 노출되는 점은 정말 위험하네요.
요즘 실시간으로도 현재 위치를 공유하는데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 SNS계정 공개범위부터 바꾸려 가야겠네요.
- **군자역금융센터 남연우 계장** •
혹여 가족들에 대한 정보가 악용될까 싶어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사진을
찍고 주의하고 있어요.
- **부산거제등지점 남종선 대리** •
비공개 계정을 따로 만들어 거기에만 아이들 성장기록을 올리고 있어요.
- **강동구청지점 마혜성 계장** •
자녀에게 의견문기 부분이 참 인상 깊어요. 이제는 이렇게 아이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다행입니다.
- **반월공단금융센터 송여진 대리** •
아이가 크면서 본인 사진은 올리지 말라고 의사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올리지 않고 있어요.
내 아이 사진이니 엄마가 마음대로 올려도 되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 **태릉역금융센터 이윤화 계장** •
세어런팅을 통해 SNS 공구로 수익을 올리는 엄마의 소식을
TV 프로그램에서 본적이 있어요. 익명의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는
있으나 그 익명의 무서움이 범죄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걱정되네요.

결혼 후 한 동네에서만 살다가, 최근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동네가 달라지는 매우 큰 이슈가 있다 보니 이사를 확정짓고 나서도 마음이 다소 싱숭생숭하다. 이삿날이 성큼 다가오자 준비할 것도 많고 바빠지고 있다. 내구성이 떨어진 오래 쓴 가구들은 교체
를 해야 하고, 거금을 들여 짜 넣은 불박이장도 아쉽지만 들고 가기 어렵게 됐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평소 신경쓰지 않았던 부분을 하나하나 챙기다 보니 뭔가 재미도 있고 보람도 생기고 있다. “도배할 때 벽지는 무슨 색으로 할까? 가구는 이 브랜드가 좋겠지?”라면서 이런저런 구상을 하며 주말을 꽤 부지런하게 보내게 된다. 생각지도 못한 의사결정의 순간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다. 한동안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왔던 나에겐 새로운 위기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최근 모 TV 광고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고 있는 현대인을 비유하여,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춤형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홍보하는 것을 보았다. 뭔가 적나라하게 내 생활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었다. 쳇바퀴처럼 일어나 출근하고, 일을 마치면 퇴근해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통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이 TV 광고에 투영된 기분이었던 것 같다. 쳇바퀴에서 벗어나려면, 뭔가 굼직한 건들로 나를 바꿀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듯 하다.

달리 생각해보면 변화의 이벤트가 꼭 굵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하루하루가 어쨌든 별 차이 없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소소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엔 작은 참새 세 마리가 대문 앞 복도 난간에 앉아 있다가 문 여는 소리에 후다닥 날아갔고, 버스와 지하철이 평소와 달리 대기시간 없이 알맞게 도착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출근했다. 지난주 저녁 달걀을 깨 보니 노른자가 두 개 있는 쌍란이 나왔고, 었그제는 돼지가 잔뜩 출연하는 엄청 복스러운 꿈을 꾸고 복권을 사 보았는데 5천 원이 당첨됐다. 의식하지 않았지만 곱씹어 보니 조금씩 하루하루는 달라갔던 것이다.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사랑의 블랙홀>에서는 주인공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같은 날이 속에서도 꾸준히 스스로를 바꿔나가는 모습이 나온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같은 날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좌절하지 않고 그 속에서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낸다. 처음엔 피아노를 전혀 칠 줄 몰랐던 주인공이 꾸준히 반복되는 하루를 이용해서 피아노학원을 매번 다니며 노력을 하더니 영화 말미엔 멋지게 한 곡을 완성해낸 것이다. 어린 마음에도 그 모습이 멋있어 보여 박수를 치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난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긍정적인 자극이 될 요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개인적으로도, 또한 행내보 <우리가족>의 입장에서든 변화의 큰 기로 앞에 서 있다. 많은 고민을 거쳐 변화의 한 발자국을 내딛기 전에 그 한걸음이 가져오게 될 긍정적인 변화를 한번 느껴보고자 한다.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내딛어 보련다. ☀



웹진으로 만나는 우리가족

우리는행 행내보인 <우리가족>을 웹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QR코드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우측 상단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디바이스에서 <우리가족> 구독이 가능합니다.



◀ <우리가족> 웹진 QR코드